

활동 보고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이다인

1. 활동 내역

교류 기관: 뮌헨 공과 대학교 (TUM: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교류 기간: 2024.10.01 - 2025.03.31

2. 지원 동기

언젠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덕분에 대학 졸업 전에 언젠가 교환 학생이라는 기회를 꼭 이용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 유럽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많은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 좋으니 오래 머무르며 천천히 여행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 중 생활 수준이 높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대학 평가 순위가 높은 뮌헨 공과 대학을 교환교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3. 입국 전 준비과정

비자 발급: 주한 독일 대사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테어민(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테어민 자리가 풀립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인기 가수 티켓팅에 맞먹습니다. 다만 매일 랜덤한 시간에 취소표가 풀리기도 하니 틈틈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 서류가 많은데 미리 준비하여 꼼꼼하게 챙겨가면 됩니다. 특히, 학생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슈페어콘토(독일 공인 생활비 계좌)를 미리 개설 및 건강 보험 가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Expatrio라는 서비스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있으니 이 점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TUM application: SNU OIA 교환학생 파견에 합격하고 나면 TUM 교환학생 담당자로부터 구비 서류 요청 메일이 옵니다.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상의 절차이니 합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이후 Acceptance letter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기숙사: 다행스럽게도, 서울대학교에서 TUM으로 파견되는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배정받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TUM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 뮌헨 학생 지원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기숙사 배정 관련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후, 어떠한 기숙사에 배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계약서에 서명해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보증금과 3개월치 렌탈비를 입금합니다. 그럼 기숙사 배정이 완료됩니다.

이메일이 정말 많이 오고, 마감기한과 구비서류를 혼동하거나 놓치기 쉬우니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마감 기한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4. 교류기간 동안의 생활

4.1. 학내 생활

TUM은 여러 개의 캠퍼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 제가 수업을 들었던 캠퍼스는 메인 캠퍼스(Main Campus)와 가헝 캠퍼스(Garhing Campus)입니다. 경영대 수업이 열리는 메인 캠퍼스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지만 Informatics 수업이 열리는 가헝 캠퍼스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가헝 캠퍼스조차 캠퍼스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캠퍼스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평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던 것은 Informatics 건물 안에 미끄럼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우 재미있으니 혹시 가헝캠퍼스에서 수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릅니다.

TUM의 수강신청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TUM의 경우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정정이 한 학기 내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취소도 계속 가능하고, 새로운 수강신청도 계속 가능합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수업(세미나 / 프로젝트형 수업)도 있지만, 웬만한 강의들은 정원 제한이 없어 무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강좌 시간대가 겹쳐도 상관 없이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TUM의 수강신청 시스템 중 매우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흥미로워보이는 강좌를 여러 개 골라, 모두 수강신청 하여 들어보고 그 중 듣고 나니 실망스러웠던 과목들을 드랍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제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수업당 인원이 백명 단위를 넘어가는 일은 매우 흔하고 수강신청 정정이 학기 중 아무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제공해주는 강의를 매우 많습니다. 현장 강의 출석이 이렇게 자유로운 만큼, 학업에 있어 헤이해지기 쉬우니 적절한 학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목 별로 상이하겠지만, 성적은 보통 기말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간고사나 과제, 심지어 출석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니 한 번의 시험이 성적의 전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특이한 점은 수업기간과 시험기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학기 중에 수업이 다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기간에 수업이 끝나면 시험기간 중에 하루를 정해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종강 후 1달 뒤에 시험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보통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큰 도서관에 가도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학구열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아침 8시에 도서관이 오픈한다면 7시 반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줄을 설 정도입니다. 다만 경험상, 오후 3~4시 즈 되면 슬슬 빈자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4.2. 학외 생활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해야하는 것은 핸드폰 개통과 계좌 개설입니다. 큰 마트에 가면 유심칩을 구매하실 수 있고, 계좌 개설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은행이 많습니다. 교통권은 도이칠란트 티켓을 학생이라면 29유로에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나면 안멜동(입주 신고)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기숙사같은 경우 한국에 있을 때 배정받기 때문에, 이메일로 공지된 열쇠 수령 장소에서 열쇠를 받고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열쇠 수령 장소에서 침낭과 베개를 입주 키트로 함께 받아 첫 날 잠자리 걱정은 없었습니다.

제 기숙사는 türkenstraße에 위치해있는 학생 기숙사로, TUM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뮌헨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뮌헨의 어떤 기숙사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기숙사는 두 건물(신축, 구축)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 신축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구축 건물은 개인 주방과 개인 화장실이 모두 딸려있고, 신축 건물은 개인 화장실은 있지만 공유 주방을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구축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숙사에 배정된 점은 매우 행운이었습니다. 먼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주변이 매우 번화가입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뮌헨에서 이런 위치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 화장실은 개인 화장실이지만 주방은 공유한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공유 화장실보다 개인 화장실이 낫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공유 주방이 있다면 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플랫 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종의 거실역할을 합니다. 이 곳에서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 저런 대화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언어교환, 파티, 카라오케, 볼더링, 스포츠데이, 등등 정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독일 대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상 국제 학생들이 독일인 학생들보다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환학생 커뮤니티에 속해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 좋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진로 등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뮌헨은 지리적으로 여행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공항도 그리 멀지 않고, 도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알프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등산을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뮌헨 공항은 저가항공이 아주 자주 다니는 공항은 아니지만, 가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뮌헨은 독일 부자들이 모두 모여 사는 동네로 유명한만큼, 독일 내에서는 생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요리 실력을 키워 오신다면 문제 없이 생활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시안 마켓이 이곳저곳 많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식재료를 많이 사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외식 물가의 경우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체감상 한국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면 학생 식당인 MENSA를 이용하면 되고, 가격도 3~7유로 정도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5. 마치며

뮌헨에서의 5개월은 제 인생 가치관을 재정립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유럽 여행에 초점을 두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갑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 트랙에서 잠시 벗어나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중에 만난 친구들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 간접적인 경험의 확장과 가치관의 전이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얻지 못했을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산, 소위 말해 전형적인 대학생이었던 제가 뮌헨에서 배운 것은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들이 사실은 어디서나 견고한 최소점이 아니라 국소점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른 곳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권의 기준이 더 맞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속한 문화권의 기준에만 매몰되지 않는 힘이 생겨야 이로부터 견고한 본인만의 목표와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스템의 물살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좁습니다.